불국토 향한 염원과 장엄의 마음 담아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⑮ 동양 신화 속 인어(人魚)

이번 편에서는 동양 신화 속 인어를 만나볼 차례다. 인도를 비롯해 불교와 우리나라 전설 속에는 서양보다 더욱 다양한 외형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인도의 물고기 신 마츠야

인도에는 마츠야(Matsya)라는 물의 신이 등장한다. 산스크리트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는 마츠야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물고기 입에서 인간이 솟아 나온 이미지로 표현되곤 한다. 마츠야는 인도 신화에서 보존과 유지를 담당하는 최고의 신 '비슈누(Viṣṇu)'의 '아바타(Avatar)'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아바타란 비슈누가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바꾼 화신(化身)을 의미한다. 얼마 전 세 번째 후속작으로 세계를 휩쓴 SF 영화 '아바타'의 명칭이 바로 인도 신화 속 비슈누에서 유래했으며, 온라인상의 가상 캐릭터를 지칭하는 '아바타' 역시 같은 사례다.

인도 신화 속 비슈누는 총 열 가지 아바타로 변신했는데, 마츠야는 그중 첫 번째 아바타다. 신화 속 마츠야는 대홍수로 인류가 위기에 처하자, 배를 이끌고 악마를 퇴치한 구세주로 등장한다. 열 가지로 구성된 아바타 가운데 마츠야가 첫 번째인 이유는 최초의 생명이 물에서 시작됐다고 믿었던 고대 인도인의 관념 때문으로 추측되며, 본체인 비슈누 또한 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신화 속 다양한 인어들

중국에도 다양한 인어가 존재한다. 중국 고대 백과사전인 〈산해경(山海經)〉 '북차삼경(北次三經)' 편에는 '인어'라는 두 글자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네 개의 발이 있고 울음소리는 어린아이 같다. 이를 먹으면 어리석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물론, 이 기록의 인어는 이형의 생명체라기보다 갯벌을 기어다니는 망둑어가 떠오르긴 하지만 〈산해경〉에는 이름만 다를 뿐 다양한 외모를 지닌 인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적유(赤鱬)'라는 생물은 물고기 몸에 사람 얼굴을 지녔고, '능어(陵魚)'는 물고기 몸에 사람의 손과 발이 달려 있으며, '저인국(底人國)'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이고 발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 짧은 설명이지만 세 기록 모두 인간과 물고기의 외형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내용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어가 대부분 겉모습만 인간이었다면 이후에는 인간과 관계까지 맺는 완성된 인격체로 변모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교인(蛟人)이라 불리는 인어다. 〈수신기(搜神記)〉와 〈술이기(述異記)〉에 찾아볼 수 있는 교인은 인간 그 자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바로 비단을 짜는 모습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츠야상(인도 18~19세기, 영국박물관).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인어(조선 17세기).


양산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 인어(조선 17세기).

"교인은 천선(泉先)으로 천객(泉客)이라고도 불린다. 남해에는 교인이 짜는 비단이 나오는데 잠수하여 비단을 짜니 용사(龍紗)라고도 한다. 그 값은 백여 금에 달하는데, 물에 빠져도 젖지 않는다."

비단 제작은 전형적인 문화적 행위인 동시에 고급 기술이 축적된 생산 활동이다. 교인이 짜는 비단은 물에 젖지 않는 특수한 기능까지 겸비하여 용사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값진 보배를 의미한다. 이는 교인이 해저에 문화를 이루고 사는 문명인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교인이 지닌 두 번째 능력은 진주로 이루어진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수신기〉에는 "남해 밖에 교인이 있는데 물고기처럼 물에 산다. 늘 비단을 짰는데 울면 눈에서 진주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확인되며, 〈박물지(博物志)〉에도 주인과 이별을 앞둔 교인이 눈물로 구슬을 만들어 바쳤다고 언급돼 있다. 흔히 진주를 '인어의 눈물'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닐까?

불멸의 인어, 일본의 팔백 비구니 설화

동아시아에서 인어 스토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일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별명은 '요괴의 나라'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과 세상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특유의 신앙 체계인 신도(神道)는 자국에서 탄생한 요괴뿐만 아니라 인어에게도 다양한 스토리를 심어주었다. 고대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부터 인어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일본인들의 인어 사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印 비슈누 첫 아바타로 '반인반어' 마츠야
中 문헌엔 다양한 모습의 인어 · 교인 기록
日 대부분 요괴로 표현, 불로장생의 상징
韓 법당 수미단 · 경전 변상도 · 불화서 확인

일본 문화의 인어는 대부분 요괴로 표현되지만, 불로장생의 상징으로도 알려져 있다. '팔백 비구니'라고 불리는 설화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동네에서 제일가는 부잣집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엄청난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그중에는 인어 고기도 있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먹지는 않고 집에 돌아갈 때 선물로 받아왔다고 한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인어 고기를 깊숙한 찬장에 숨겼는데 이 모습을 본 딸이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먹어버렸고 남자는 그 사실을 깜빡했는지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어느덧 딸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해 혼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됐고, 몇 년 뒤 다른 남자와 재혼했지만 역시 비명횡사했다. 이렇게 그녀와 혼인한 남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여인은 세상에 홀로 남겨져 외로움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면 늙기 마련인데 여인의 외모는 주름은커녕 오히려 점점 어려지는 것이었다. 늙지 않는 외모와 기구한 팔자를 이상하게 여긴 딸은 한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인어 때문에 불로불사의 몸이 됐고, 그 대가로 남성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저주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죄책감을 느낀 딸은 속죄를 위해 출가해 비구니 스님이 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나무 심는 공덕을 쌓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800년 후, 긴 방랑의 세월을 보낸 스님은 마침내 자신을 지배하던 인어의 힘이 모두 없어진 것을 직감했다. 이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뒤 기쁜 마음으로 숨을 거뒀다고 한다. 현재 '쿠인지(空印寺)'라는 사찰 근처에는 팔백 비구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다고 전하는 동굴이 위치한다. 팔백 비구니 설화는 지금도 각종 소설과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팔백 비구니 설화가 일본 곳곳에서 확인되는 이유는 그녀가 출가 후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수미단을 노니는 불교미술의 인어

우리나라에도 인어 설화가 존재한다. 여수와 부산, 제주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인어 스토리는 당시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 거문도의 인어 '신지끼'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어민들에게 모습을 비추어 날씨를 알려주는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어를 표현한 시각 자료도 있을까? 물론이다. 바로 불교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당 내부에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설치된 '수미단(須彌壇)'이다. 수미산(須彌山)을 형상화한 불단인 수미단은 세상 중심에 우뚝 솟은 정상, 즉 부처님이 사시는 불국토를 의미한다. 수미단은 유토피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행복을 상징하는 온갖 길상 문양이 새겨진 장엄 세계로 표현된다.

수미단 가운데 인어가 확인되는 사례는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과 양산 통도사 대웅전이 있다. 두 수미단에 등장하는 인어는 같은 듯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다. 먼저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인어는 측면 위아래에 위치하는데 민머리에 수염이 달린 얼굴이 마치 허허 웃는 할아버지처럼 친근함이 묻어 있다. 특히 아래쪽 인어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데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누구라도 부처님에게 다가가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어로 보여주는 포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통도사 대웅전 수미단 인어는 이와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준다. 떡붕어를 연상시키는 몸에 통통하고 뽀얀 피부와 양쪽으로 묶어 올린 상투 표현이 인상 깊다. 부처님 곁에 머무르며 시중을 드는 천진난만한 동자가 연상된다. 앳된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통도사 인어는 함께 표현된 사자와 기린 등 갖가지 서수와 함께 모란 꽃밭 같은 수미단을 자유롭게 노닐고 있다.

이외에도 불교 경전 변상도와 불화 곳곳에도 인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 민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불교가 얼마나 자유롭고 다채로운 성격을 지닌 종교인지 인어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불국토란 미묘하고 신비한 요소들로 가득 찬 유토피아로, 이 무한한 곳을 표현하는 건 우리가 지닌 상상력의 몫이다. 불교문화에 어떤 이유로 인어가 존재하는지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인어에게서 불국토에 도달하고픈 염원과 그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염원을 마음에 품고 이상세계인 불국토를 상상하는 건 어떨까? 수미단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은 저 인어들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다.



김용덕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